



2025광주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개막을사흘앞둔2일오후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결승경기가열리는특설경기장이설치되고있다. /뉴스스

광주세계양궁대회 개막... 10개 메달·탄소중립 실천

5~12일... 예선 국제양궁장·결승 5·18민주광장
76개국 731명 선수... 컴파운드·리커브 메달 경쟁
선수단에 텀블러 제공... 일회용품·종이 사용 제한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을 주제로 8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12면〉

광주시세계양궁대회조직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세계양궁 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고 4일 밝혔다. 세계장애인양궁대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예선전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진행되며 16강전부터 메달 색깔을 결정하는 결승전은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94년 역사...세계양궁 최대 축제
올해로 53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양궁 선수권대회는 1931년 폴란드 르보프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1939년까지 매년 열렸다.

이후 세계대전의 여파로 중지됐지만 1946년 10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됐으며 16회 노르웨이 오슬로 대회부터 지금까지 홀수년도에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1985년 제33회 대회를 서울 육군사관학교, 2009년 45회 대회 울산

에서 열었다.

특히 이번 광주대회는 이탈리아 토리노, 네덜란드 스페르토헨보스 대회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장애인양궁대회(22일~28일)까지 동시에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76개국 731명 선수단...10개 메달 놓고 경쟁
이번 대회는 76개국 731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컴파운드와 리커브에서 10개의 메달을 놓고 기량을 펼친다.

리커브는 70m 거리·122cm 크기, 컴파운드는 50m·80cm의 크기의 표적 중앙에 화살을 쏜다.
컴파운드는 5일 공식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6일부터 일전에 돌입한다. 남녀 단체전에 이어 혼성 단체전이 진행되며 7일 이후 혼성 단체전 결승과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8일부터는 남녀 개인전 예선 경기가 진행되며 16강전부터 5·18민주광장에서 메달 색깔을 결정하기 위한 결승 무대가 열린다.

컴파운드 남녀 개인전(2개), 남녀 단체전(2개), 혼성 단체전(1개) 총 5개의 메달이 확정되면 곧바로 양궁의 꽃 리커브 경기가 진행된다.
방식은 컴파운드와 같으며 10일에 5·18민주광장에서 혼성 단체, 남자 단체, 여자 단체 메달 결정전이 진행된다.
이어 11일 남자 개인전과 12일 여자 개인전 우승국가를 결정한 뒤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대회의 결승전은 대회 막바지에 펼쳐지던 결승전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컴파운드 3일, 리커브 3일 등 총 6일간 진행된다.

관객들은 대회 개막 이튿날부터 5·18민주광장에서 메달을 놓고 펼쳐지는 각국의 경쟁을 관람할 수 있다.

◇노 플라스틱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대회
광주에서 펼쳐지는 세계양궁대회와 장애인 대회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 친환경적으로 펼쳐진다.

'노 플라스틱(NO! Plastic), 예스(YES) 966'을 핵심 구호로 내걸고 30년생 소나무 966그루를 식재하는 효과에 상응하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회기간 경기장 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최소화되며 종이 홍보물 대신 정보무늬(QR코드) 기반 온라인 홍보로 대체된다.

선수단에는 일회용 생수병 대신 텀블러

와 식수가 제공되며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5·18민주광장에서는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걷기행사와 양궁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기동취재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소화 설비 미작동'

소화·확산 방지 설비·설비시스템 정상 작동 안해
화재 경보기 누락... 20대 근로자 인명피해 이어져
불 난 오븐기 5년간 17번 화재... 대책 수립도 없어
경찰, 공장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상·실화 혐의 송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부 소화장치와 방화셔터 등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화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보시스템 설치도 누락돼 뒤늦게 대피한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설비와 소화 장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장장을 비롯해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입건, 송치한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합동 감식 결과 불은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께 금호타이어 광주 2공장 정련동 2층 마이크 로웨이브 오븐 4호기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오븐기는 올해 들어 5번 화재가 발생, 최근 5년 동안 17번이나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측은 잦은 화재에도 화재 원인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재료와 설비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불이 해당 오븐기에서 최초 발화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명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연기·불꽃 감

지기와 문 자동 폐쇄,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터 등 오븐기 내외 소화·확산 방지 설비·시스템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웠다.

방송과 화재 경보시스템 역시 일부 장소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3층 대합실 휴게공간에 있던 20대 근로자 A씨가 화재를 뒤통스 인지, 대피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12만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불이 난 지 22분 뒤에야 동료들의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대피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장 측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일부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실시해온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화재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공장장 B씨(50대)를 비롯해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 실화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전관훈 기자

"한 달 빠른 무더위"... 광주·전남 올여름 기록적 폭염·폭우

평균기온 최고치 기록, 열대야·집중호우 동시 발생

올해 광주·전남의 여름은 평년보다 한 달 빠르게 시작된 무더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극한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함께 나타난 '역대급 이변의 계절'로 기록됐다.

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올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26.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26도) 기록을 넘어서며 평균기온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마철 이후인 지난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보다 약 한 달 일찍 더위가 시작했다.

이런 무더위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대기 상층의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정체된 고기압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 여름철 내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여름철 폭염 일수도 29.6일로 평년(22.3일)보다 많았다. 특히 완도(44일)와 고흥(41일), 장흥(35일), 해남(29일)에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 일수를 기록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도 연일 이어졌다. 광주·전남 열대야 일수는 25.7일로 평년보다 14.6일 늘었다. 목포는 열대야 일수가 평년(16.3일)의 약 2.5배인 45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여름철 해수면 온도 역시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장맛비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돼 빨

리 끝났다. 남부 지방은 지난 6월 19일 장마철이 시작돼 평년보다 4일 빨랐다. 이듬달 1일 장마가 끝나면서 장마 기간은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

그러나 7월 중순과 8월 사이에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발생했다.

7~8월은 중위도 파동 강화로 인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평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광주(76mm)와 순천(70mm), 강진(52mm)은 1시간 최대 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함동주 광주기상청장은 "지역별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여러 극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기상 재해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상사와 함께 여름을!
상사호랑 직고!

제25회 영광불갑산 싱글리축제

2025. 9. 26. (금) ~ 10. 5. 일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

주요 프로그램

- 상사와 in Love 콘서트 (신요법) 9. 26(금) 오후7시
- '그럴때 있으시죠?' (김제동) 10. 4(토) 오후6시
- 상사와 대학가요제
- 상사와 꽃길걷기
- 상사와 달빛야(夜)행
- 브레드 이발소 9. 27(토) 오전11시, 오후3시
- 도래미 프린즈 10. 4(토) 오전11시, 오후3시

주최/주관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영광수협합작회, 영광중의회, 영광연고지부, 동학, K210(주)코리야